

KBS 1TV 「당신도 發明王」 盛了 100分企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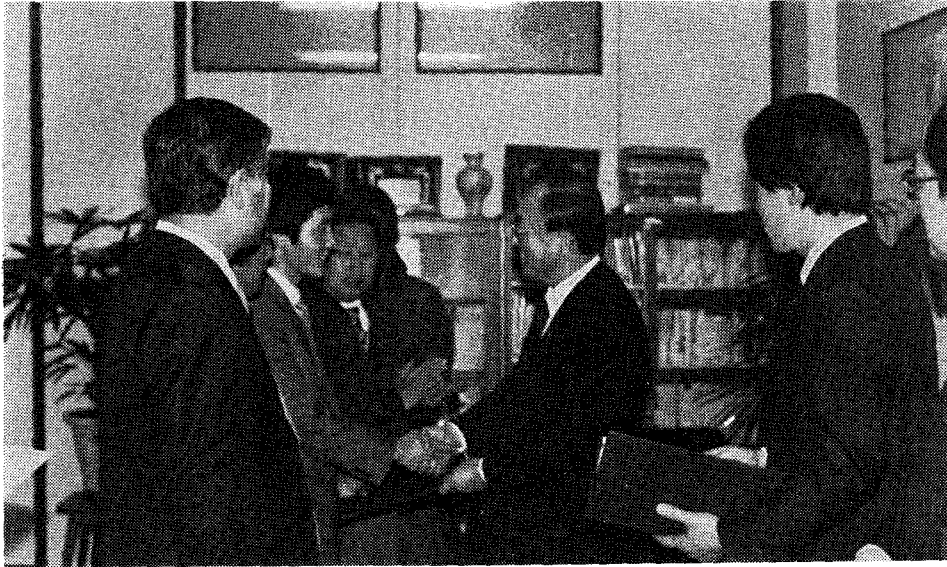
生放送으로 發明王 6명 誕生



○…………全國民의 科學化와 國民 모두가 發明人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創造하……○
 ○…………는 國民精神을 함양하기 위해 K. B. S(韓國放送公社)主催, 起亞產業(株)協贊, 本會 主……○
 ○…………관으로 마련한 KBS 1TV 100分企劃 「당신도 發明王」이 지난 2月 27日 午後 6時 40分……○
 ○…………부터 100分동안 KBS 스튜디오와 本會 發明獎勵館에서 이계진 아나운서와 윤영미 아나……○
 ○…………운서의 진행으로 全國에 生放送으로 放映됐다. ……………○
 ○…………審査委員長인 本會 李泰燮 副會長을 비롯 鄭碩永 特許廳 審査 2局長, 韓鼎燮 단국대……○
 ○…………교수, 朴同玄 덕성여대교수, 洪載日 辨理士, 金明信 辨理士, 申錫均 한국발명학회 회장, 호경……○
 ○…………찬씨(生活科學家) 등의 審査로 스포츠용품 4點, 주방용품 4點, 생활기기 5點, 기타 4點……○
 ○…………등 17點이 出品된 이번 「당신도 發明王」에서는 「回轉式安全개폐기」를 出品하여 最優秀……○
 ○…………賞을 차지한 吳世龍씨(世一商社代表) 등 6名의 發明王이 誕生했다. ……………○
 ○…………이계진 아나운서의 인사에 이어 本會 李泰燮 副會長의 경과보고 및 심사기준 설명에……○
 ○…………이어 大學生 發明人 전승훈군의 「절첩컵」 紹介로 시작된 이날 放送은 특히 아홉번째로……○
 ○…………출연한 김현어린이(포항지곡국교 4학년)가 出品한 「장도리」가 눈길을 모았다. ……………○
 ○…………그런데 이번 「당신도 發明王」에는 당초 全國에서 346點이 응모되어 1次 심사에서 78……○
 ○…………點을 선정한 다음 2次에서 다시 29點을 선정했으며 다시 實物審査에서 17點이 最終 선……○
 ○…………정되어 이날 放送을 통해 發明王을 선정했다. ……………○

回轉式 最優秀賞 차지 安全개폐기

本會 會長室서 施賞式 가져



○.....KBS 100分企劃「당신도 發明王」受賞者에 대한 施賞式이 지난 2月 28日 午後 4시.....○
 ○.....本會 會長室에서 있었다. 本會 李泰燮부회장과 起亞産業(株) 朴齊赫이사를 비롯 本會.....○
 ○.....및 起亞産業 任職員 多數가 參席한 가운데 있는 이날 施賞式에서 本會 李泰燮부회장은.....○
 ○.....受賞者들에게 「發明振興을 이끄는 역군으로서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精進해주시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번 「당신도 發明王」에서 영예의 最優秀賞은 「回轉式安全개.....○
 ○.....폐기」를 출품한 吳世龍씨(世一商社 代表)가 차지, 賞狀(韓國放送公社社長賞)과 賞金.....○
 ○.....300만원을 받았다.○
 ○.....또 優秀賞에는 「절첩식텐트」를 출품한 金淳太씨(아이디産業 代表)와 「고무튜브를 부.....○
 ○.....착하는 보트」를 출품한 洪光善씨(호상레저 代表)가 차지, 賞狀(韓國發明特許協會會.....○
 ○.....長賞)과 賞金 150만원씩을 받았으며, 獎勵賞에는 「自動點火장치가 내장된 권연케이.....○
 ○.....스」를 출품한 康英進씨(摩河貿易 專務)와 「신선로 겸용 고기구이판」을 출품한 尹秀子.....○
 ○.....여사(주부) 그리고 「깨소금 粉碎容器」를 출품한 朴承權씨(勝利商社 代表)가 차지, 賞.....○
 ○.....狀(起亞産業(株)社長賞)과 賞金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밖에 고성수(공기주입식방석), 안병열(휴대용 가스렌지), 전승훈(인스턴트 차류가.....○
 ○.....수장된 비닐코팅된 지제 절첩컵), 이인순(다목적 옷걸이), 강병국(전후풍향선풍기),.....○
 ○.....김영만(비누곽이 내장된 합성수지의 결합분해식 의자빨래판), 김현(장도리), 최우순.....○
 ○.....(지폐계수기), 이준석(태양열집열판의 방향자동전환제어장치), 목관호(고구마시계), 전.....○
 ○.....수도(다목적 연탄집개)씨등 11명은 努力賞을 차지했다.○

榮光의 얼굴들

發明王에 吳世龍씨 뽑혀

-“누구나 發明人이 될 수 있다.”.....○
-이는 이번 「당신도 發明王」에서 다시 한번 立證되었다. 發明王으로 뽑혀 賞을 받.....○
-은 6名 모두 生活속에서 우연한 機會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發明으로 昇華했다.○
-榮光의 얼굴들을 살펴본다.○

回轉式 安 개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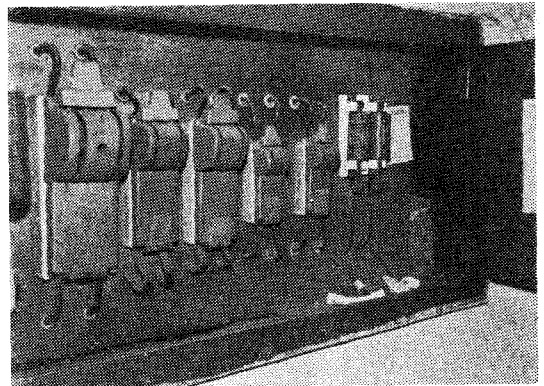
父親 代이은 총각 發明人의 凱歌

最優秀賞(韓國放送公社 社長賞)

世一商會 代表 吳 世 龍

「당신도 發明王」에서 「回轉式 安全 개폐기」를 출품하여 最優秀賞인 「올해의 發明王」에 뽑힌 吳世龍씨(32)는 집념과 정열이 대단한 노총각이었다. 또 發明企業人인 父親의 영향을 받아 發明人으로서의 꿈을 키웠고 끝내는 父親의 代을 잇기에 이르렀다.

吳씨가 發明한 이 機器의 機能 및 構造는 일반 가정 및 工場에서 사용하는 카버 나이프 스위치와 비슷하나 푸즈가 안전 개폐기와 달리 각 4열식 원형체의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푸즈가 끊어졌을 때 카버 나이프 스위치는 나사를 해체하여 새로운 푸즈로 교체해야 하나 吳씨의 이 機器는 보조 공구가 필요 없이 푸즈 홀더 손잡이만 앞으로 올려 90度 回轉시킨 다음 스위치를 넣으면 回路가 構成된다. 따라서 吳씨의 이 機器는 푸즈가 끊어졌을 때 푸



즈를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11年前 父親께서 發明하여 生産하는 「자동차 안전 제트브레이크」工場에 갔다가 푸즈가나가工場 전체의 가동이 푸즈를 갈아끼는 동안 중단되는 것을 보고 시작한 研究의 結實이라 할 수 있지요.”

父親의 영향을 받아 高等學校 1學年때부터 發明에 빠져들어 高等學校 3學年 때 「자동차흡반이」를 짚으로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고, 大學에선 電子를 전공한 吳씨에게 이 機器의 發明은



〈吳世龍〉



〈金淳太〉



〈洪光善〉



〈康英進〉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다.

모든 研究가 3年만인 77年 이미 끝났다.

그러나 軍입대 관계로 吳씨의 發明은 5年동안이나 장농 서랍 깊숙한 곳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잠을 자야 했다.

吳씨의 發明이 다시 빛을 보게된 것은 지난 82年 4月. 軍에서 제대한 吳씨가 實用新案을 出願하면서 부터. 곧이어 科技處가 支援하는 82年 중소기업기술지원자금을 받아 시작품이 제작되

어 그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오는 4月 뉴욕에서 열리는 第9回 國際發明展에도 出品이 確定되었다.

“投資者를 구해 짝잘한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吳씨는 이 機器 외에도 登錄된 特許 2件, 出願중인 特許 3件, 研究중인 特許 5件을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급두뇌였다. 그러나 事業資金이 없어 받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절첩식 텐트

「태공의 경지」이른 낚시광의 發明

優秀賞(韓國發明特許協會 會長賞)

아이디産業 代表 金 淳 太

「절첩식 텐트」를 出品하여 優秀賞을 차지한 金淳太씨(46)는 건축학을 전공하여 건축設計士 자격을 가진 인텔리 發明人이었다.

“낚시를 좋아해 전국 낚시터를 누비다보니 여러가지 텐트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어요.”

이 때문에 設計士란 職業을 버리고 텐트를 비롯한 레저용품 開發에 뛰어들었다는 金씨는 절첩식 텐트 외에도 낚시가방을 비롯한 낚시도구에 관한 70여건의 물품을 開發하여 이중 20件은 이미 登錄되었고 50여件은 出願중에 있다.

철이 들기도 前부터 父親을 따라 전국 낚시터를 누빈 金씨의 낚시솜씨는 한마디로 「태공의 경



지」에 이르러 그의 發明品들은 한치의 손색도 없다는 것.

절첩식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은 텐트를 접으면 그 부피가 기존상품의 1/3에 지나지 않으며 무게가 가벼워 휴대가 간편할뿐만 아니라 텐트를 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 15초에 불과하다는 것.



〈尹秀宇〉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物品의 材質을 영구화 하기 위해 텐트는 특수방수 포지에다 골조는 녹이 전혀 안나는 스텐레스 강선재를 사용하였다. 또 팩꽃이 및 로프는 경질 합성수지재 및 질긴 나이론합성사로 하였으며 消費者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기 위해 디자인도 새롭게 考案하였다.



〈朴承權〉

“製品의 모든 면을 구석 구석 多角的으로 考察하여 完成시킨 試製品은 처음부터 주문이 쇠도하였지요.”

지난해 9月 本會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 첫선을 보인 후 本格的인 生産에 들어간 절첩식 텐트의 인기는 한마디로 폭발적이었다.

國內市場은 金씨가 독점하고, 外國輸出은 S 물산에 양도, 해마다 적지않은 노열티를 받고 있다.

“이제 기반도 잡히고 했으니 「레저용품 개발 전문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렵니다.”

金씨는 레저용품업체의 독보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겠다고 하며 하늘같은 꿈을 펼쳐 보였다.

고무 튜브를 부착하는 보트

물이 좋아 물에 사는 「물사나이」의 考案

優秀賞(韓國發明特許協會 會長賞)

호상레저 代表 洪光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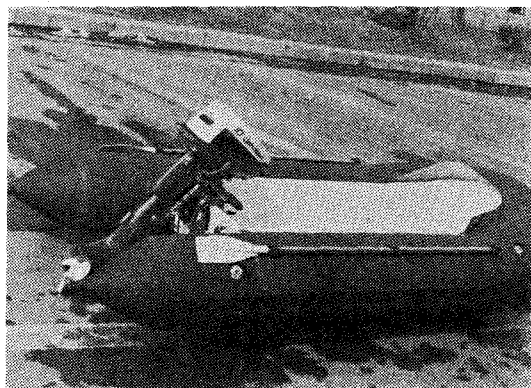
“물이 있는 곳이라면 강이건 호수건 바다건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물에 사는 물사나이」지요.”

이번 榮光도 물이 준 것인만큼 계속 「물사나이」로 살겠다는 洪씨는 건축학을 전공, 지난해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핵심사원이었다.

洪씨가 發明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75年. 건축학도 洪씨는 차라리 발명학도란 명칭이 어울릴 정도로 발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번에 出品한 보트開發을 결심한 것을 83年 7月.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물에 사는 물사나이 洪씨는 기존 플라스틱보트와 고무보트의 장점만을 합하면 더 없이 편리한 보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洪씨가 생각한 보트는 첫째 튼튼하고, 둘째



안전하고, 셋째 운반이 편리하고, 넷째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보트제작을 위해 洪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職場도 버렸다. 이같은 洪씨의 결단은 지난해 12月 시작품 제작 및 實用新案 出願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 美國·日本등 17個國에 特許를 出願하였으며, 요즘에는 외국 바이어도 심심찮게 찾아오고 있다.

“기필코 自體 生産시설을 갖춰 고무 보트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出品된 보트외에도 30여件을 出願중에 있는 洪씨는 지금은 보트 부품을 모두 하청주어

조립생산만하고 있지만 가까운날에 自體工場에 전공정시설을 갖춰 놓고야 말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自動點火裝置가 내장된 권연 케이스

年間 輸出예상액 100萬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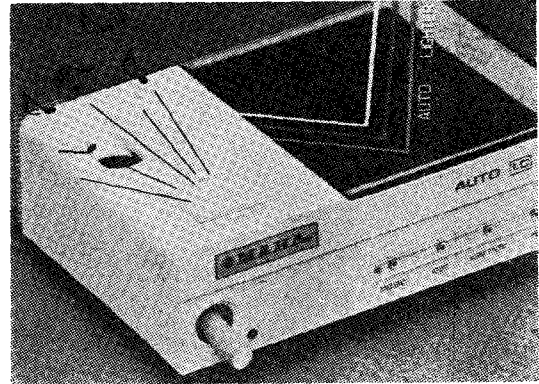
獎勵賞(起亞産業(株) 社長賞)
摩河貿易(株) 專務 康英進

운전시 安全한 운전과 편리한 ick연을 위하여 담배함과 自動點火 라이터가 함께 내장된 권연 케이스를 出品하여 獎勵賞을 受賞한 康英進씨(37)는 貿易會社 技術部 말단 社員에서 專務로 까지 승진한 노력파였다.

“100% 自體 技術로 開發되었지요.”

지난 83年 외국 바이어의 부탁을 받고 전사원 의 지혜를 모아 自體開發에 成功했다. 지난 2月 시제품 생산에 이어 오더가 들어오면 3月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計劃도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제품 의 특징은 반도체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것임으로, 움직이는 차에 부착시켜 놓았을 때 고장이없고, 점화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



온다는 것.

年間 輸出예상은 100萬달러. 이미 市場調査까지 끝났다.

그런데 康씨는 이 권연 케이스 外에도 4件이 이미 登錄되었으며 2件이 出願중에 있는 의욕적인 發明人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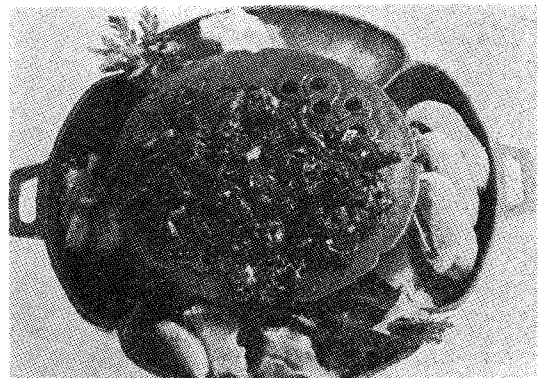
신선로 겸용 고기 구이판

우연한 機會 아이디어의 結實

獎勵賞(起亞産業(株) 社長賞)
주부 發明人 尹秀子

「누구나 發明人이 될 수 있다」란 말을 立證시킨 주부 發明人 尹秀子여사(45)는 自身이 發明人이 되리라고는 생각치도 않았고 또 發明을 계속 할지 안할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이번에 出品한 신선로 겸용 고기 구이판도 우



연한 기회에 번쩍하고 스쳐가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實用新案出願으로 결실을 맺어 놓았다.

尹여사는 2年前 「KBS 요리경연대회」에서 잉태한 아이디어를 남편의 도움을 받아 3개월만에

탄생시켰다.

여러차례 계속된 시행착오에 그만 두어버릴까도 했으나 그때마다 남편의 격려가 너무도 따뜻해 오늘의 영광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는尹여사는 모든 공을 남편에게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깨소금 粉碎 容器

재래식 맷돌원리 利用

獎勵賞(起亞産業(株) 社長賞)

勝利商社 代表 朴 承 權

男子가 주방용품인 「깨소금 粉碎容器」를 發明하였다하여 話題가 되었던 朴承權씨(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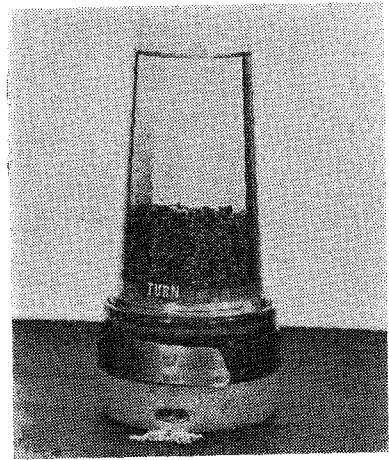
차씨가 「깨소금 粉碎容器」를 發明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10여年동안 食生活改善事業에 종사한 차씨가 「깨소금 粉碎容器」를 發明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

“原理는 재래식 맷돌을 축소, 機械化한 것이지요.”

차씨의 說明대로 이 容器의 構造는 맷돌의 원리를 이용했다. 다만 흡입구에 깨를 넣어 주는 과정을 손대신 날개 모양의 기구로 대신하는 것이 다를 따름이다.

그런데 이 容器를 확대 製作하면 원두커피 분쇄용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차씨는 깨소금 분쇄용기는 國內販賣用으로, 원두커피 분쇄용기는 輸出用으로 本格生産을 서두르고 있는데 國內販賣는 이미 「J생 명관축물」로 생산계약이 이루어졌고, 輸出은 상담중에 있다. ∞

사 치 자 랑 외 제 자 랑

가 정 망 신 나 라 망 신